

월요논단



김 동 운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지난달 4일 제주에서 안타깝고 황당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걸어가던 30대 등산객 2명이 달리던 버스의 짐칸 문쪽에 치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였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9분쯤 제주시 제1산록도로 한라산 관음사 입구 부근의 갓길을 건넌 두 사람이 육군 특전사 예비부대 버스의 열린 짐칸 문쪽에 치어 치어, 한 사람이 숨지고 다른 한 사람은 손목과 골반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사고의 피해자들이 관음사 코스로 한라산에 등산하기 위해 걸어가던 중이었는데 짐칸 문쪽을 열

비명횡사할 각오로 걸어야 하나?

고 달리던 버스가 갓길을 침범하면서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짐칸 문쪽이 이동 중에 열린 사실을 운전병이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 주행하던 중 사고가 난 것이었다. 당시 사고 직후에 찍힌 보도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도로에는 인도(人道)가 없다. 차도(車道) 말고는 야생잔디가 자라는 좁은 갓길만 있을 따름이다. 바로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다. 운전병의 과실도 문제이긴 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도로 구조에 있었다는 것이다. 길은 본디 사람이 다니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곳곳에 엄청난 많은 길들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넓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생생 내달리는 차량 위주다. 차들도 잘 달릴 수 있어야 하겠지만, 사람도 편히 다닐 수 있어야 온전

한 길이지 않겠는가. 마음 놓고 걸을 수가 없다면, 비명횡사할 각오를 하고 걸어야 한다면 그게 어디 길인가. 예전의 제주도는 돌·바람·여자가 많아서 삼다도라고 했지만, 이제는 렌터카가 여자를 밀어내고 삼다의 한 자리를 차지했다는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니게 됐다. 제주인구의 성비에서 이미 남자 쪽이 더 높아진 반면, 도내의 렌터카 수는 3만 대를 넘는다고 하니 지금이 현실적인 표현이다. 렌터카만이 아니라 제주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60만 대에 육박하는 상황이니 길을 달리는 자동차는 도내 인구만큼이나 많은 상황이다. 세계적인 관광지로 각광받는 제주도이니만큼 차량이 잘 주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만큼 사람도 즐거이 보행할 수 있는 길이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차가 다니는 모든 길에는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배려

하는 관계당국의 각별한 정책이 필요하다. 제주도가 보행자 사고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급한 사안이 돼야 한다. 여기서 명심할 것은 차도와 확실히 구분되지 않는 인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알맞은 경계석으로써 그 높이에서부터 차도와 분리시키는 인도의 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 관음사 부근의 도로에도 경계석으로 구분된 인도가 있다면 지난달의 안타깝고 황당한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우선 마을과 관광지 주변부터라도 인도를 제대로 조성하자.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을길을 다니며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여유롭게 거닐면서 제주를 느낄 수 있도록 하자. 그것은 또한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기도 하다. 사람이살이에서 안전이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열린마당

개인 욕심으로 도시미관 저해하는 옥외광고물



김 군 호
서귀포시 정방동주민센터

우리나라 어느 도시나 상업지역을 가면 사람의 이목을 끄는 가장 큰 요소는 무엇보다 옥외광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문구의 에어라이트, 입간판, 전단지 등 정방동 지역은 서귀포시를 대표하는 상업지역으로서 불법유동광고물이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불법유동광고물뿐만 아니라 건축물 고경간판도 서로 자신의 영업장을 부각시키려는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 주변 간판보다 글씨를 크게 하거나, LED등을 달고 화려한 색채를 사용해 오히려 어지럽게 보이고 거리의 미관과 통일되지 못한 채 광고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는 광고물이 된다.

시내 중심가 뿐 아니라 교외로 눈을 돌려봐도 마찬가지다. 제주도의 도로 중 가장 대표적인 일주도로를 보면 지정계시대가 있음에도 가로수나 가로등에 현수막을 설치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미관을 저해한다. 물론 대도로운 펜스에 현수막을 게시하면 광고효과는 좋다. 하지만 그게 오래갈까?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현수막만 보고 영업장을 찾아갈까? 친절하고 실력만 좋으면 인터넷 또는 SNS를 통해 찾아서 온다. 유럽의 유명 도시거리를 보면 건축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고 건축물과 어울리게, 깔끔하게 간판을 설치한 것을 볼 수 있다. 서귀포시도 도심지가 아닌 읍면같은 교외로 가면 돌담과 돌집 등 서귀포만의 특색 있는 건축물들이 많이 있다. 요즘 이러한 돌집을 살려 내부 인테리어와 돌집과 어울리는 간판을 설치하는 맛집이 많다. 도로변에 에어라이트나 현수막을 설치해야만 고객들이 찾아온다는 고정관념을 바꾸고 친절과 실력을 갖추도록 스스로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환경영향평가 논란... 도 "확정된 것 아냐"

현재 실무적 협의 단계일 뿐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 차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이 가운데 제주도가 "동의절차 생략은 동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해명. 지난 18일 열린 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의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현재 실무적 협의 단계"로 확정된 것이 없음을 설명. 동의절차 생략 논의 추진 여부 질문에는 "의회와 협의에 추진하겠다"고 언급. 오은지기자

"4·3특별법 개정 적극 뒷받침"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지난 19일 제주4·3특별법 개정방향 정책간담회를 개최, 배·보상에 대해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학살사건 위자료 평균금액'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합의. 도당은 진상·피해조사 보고서 작성 및 방안, 4·3위원회의 구성 방법, 4·3위원회의 조사 권한 강화, 진상조사 및 피해보상 실무 기구 설치,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 장성철 도당위원장은 "4·3특별법 개정을 도당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 백금탁기자

추석 대형마트 의무휴업 변경

○...제주시가 대형마트의 10월 의무휴업을 한시적으로 변경, 추석 당일 문을 닫는 내용을 최근 공시. 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주 금요일인 10월 9일에서 근로자들의 명절 휴식권 보장을 위해 추석 당일인 1일로 변경하기로 결정. 시 관계자는 "의무휴업일 한시 변경은 3개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명절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 문미숙기자

사설

물가 치솟아 추석 장보기가 겁난다니

올해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는 서민들의 부담이 적잖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느 것 하나 오르지 않은 품목이 없을 정도로 거의 다 올랐기 때문입니다. 추석 장보기가 겁난다는 말이 엄살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역대 최장 장마와 함께 연이은 태풍 여파로 농수축산물 가격이 치솟으면서 추석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상공회의소가 제주지역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추석 제수용품 구매비용 조사 결과 4인 가족 기준 25만969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추석 차례비용 23만7920원보다 9.2%(2만1770원) 오른 것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과일류 6개 품목을 구매할 경우 지난해 대비 10.0% 상승한 6만7840원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과(5개)는 1만7500원, 배(5개)는 1만920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9.3%, 25.2% 올랐습니다. 채소류 8개 품목을 살 때는 지

난해에 비해 14.5% 오른 4만7210원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잦은 제주고사리(400g 7500원)는 45.1%, 애호박(1개 2630원) 43.7%, 무(2kg 4000원)는 49.8% 오른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육란류 및 해산물류 7개 품목의 구입비용은 11만8300원으로 지난해보다 8.5% 오르는 등 차례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우울한 추석'이 예상되는 가운데 물가마저 급등해 걱정입니다. 긴 장마와 잇따른 태풍으로 주요 농산물의 출하량이 크게 줄어든 탓이 큽니다. 문제는 앞으로 추석 제수용품의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차례상 비용 조사가 추석 보름전에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가까울수록 더 상승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뜰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운만큼 물가당국의 관리 등 세심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신 대중교통체계 3년... 들끓는 재개편 여론

제주지역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이 지난 2017년 시행후 3년째 물가 맞아 제도정착은 커녕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했습니다. 대중교통체계 전면개편은 이용객수와 만족도면 부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연간 1000억원을 웃도는 버스 준공영제 예산의 '피조기' 논란이 계속 고조되는데다 핵심인 프라이 복합환승센터 건립계획도 사업 타당성 결여로 무산되는 현실을 맞았습니다. 도의회는 지난주 임시회 각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시대 고충분담없이 과도한 재정 부담을 계속 야기하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예산절감 대책을 강도 높게 주문했습니다. 도의원들은 도의 지출구조조정으로 민간 보조금 30% 삭감속에 고충분담은 커녕 운수업체 보조금이 오히려 늘면서 올해 1000억원을 넘는 지원금에도 앞으로도 손실금을 다 보전해줘야 하는 구조적 문제에 근본대책 마련을 이구동성으로 지적했습니다. 버스 이용객이

졸면서 빈자로 다니는 사례들도 많아 강력한 노선조정을 통한 효율성 강화 주문도 나왔습니다. 다만 세금을 버스운송회사에게 먹여살리는 것 아니냐는 힐난까지 받는 버스준공영제는 이제 원점 재검토돼야 할 상황임을 강력 시사합니다. 도내 주요 지점 대중교통 연결고리 역할을 할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은 용역결과 타당성 결여로 없던 일이 될 지경입니다. 제주공항 복합환승센터·도심진입 일반환승센터 모두 경제성·재무성 타당성을 확보 못했고, 동광·대천 일반환승센터도 경제적 타당성 및 이용수요 부족으로 분석된 까닭입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큰 밑그림인 '환승센터사업'도 타당성 결여로 판명 난 마당에 전면 재개편은 당연합니다. 대중교통체계 전면개편 시행 3년, '환승센터'도 안세를 판에 계속 형세로 버스회사 먹여 살리는 구조의 준공영제를 유지할 순 없습니다.

부 고

장우석(금원개발 전무) 어머니 창녕 성씨 순덕(향년 88세)께서 서기 2020년 9월 19일 05시 38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9월 21일(월요일)
▶발인일시: 2020년 9월 22일(화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빈소
▶장 지: 해안동 선영

아 들 장우석 며느리 고희자
문석 이상분
딸 장영란 사 위 양성호
영순 조용남
영숙 오서윤

※ 연락처 : 장문석 010-2697-3760
이상분 010-2686-0329

부 고

박성철(前 옹현고등학교 교사) 어머니 제주고씨 원춘(향년 99세)께서 서기 2020년 9월 20일 10시 1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9월 22일(화요일)
▶발인일시: 2020년 9월 23일(수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중앙병원(이호동 소재) 장례식장 2분향실
▶장 지: 아흔아홉골 선영

아 들 박성철 며느리 윤무순
딸 박기하
무순 사 위 이대영
손 자 박희람 위손자 이우람
희진 우진

※ 연락처 : 박성철 010-9666-6909
박무순 010-2626-1844
이대영 010-3696-1844

부 고

김경주(AIG손해보험(주) 개인보험 본부실장) 아버지 경주김공 철길(향년 87세)께서 서기 2020년 9월 20일 06시 08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9월 23일(수요일)
▶발인일시: 2020년 9월 24일(목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빈소
▶장 지: 한경면 고산리 선영

부 인 김순일
아 들 김경주 며느리 유상정
딸 김정순
정선 사 위 강임복
정일 문덕찬
정숙 이인철
정심 김일권
정춘 이선형

※ 연락처 : 김경주 010-4734-9400
강임복 010-3690-2801
문덕찬 010-3690-2451
이인철 010-2698-0643
김정순 010-3069-8325
김정일 010-6798-2451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제주고씨 경생(향년 91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9월 21일

아 들 부태언 며느리 김영희

태진 허성희

호진 문인순

채권신고 공고(1차)

당 회사는 2020년 9월 15일에 있는 당사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2020년 9월 15일자로 당사의 영업을 폐지하고, 2020년 9월 15일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를 완료하여 청산절차를 개시하였사오니, 당사에 채권이 있으신 분은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하기의 주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채권신고가 없을 시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1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오공일
청산인 채 동 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용흥로33번길 5(강정동)



전문벌초 대행업체
직통 T. 010-3692-4898
사무실 713-4898